폐기물 관리에 세계 최초로 첨단 무선 인식관리(RFID) 시스템 도입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폐기물 유통정보를 자동 관리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신기술을 감염성폐기물 관리업무에 도입하여, 2007년 1월부터 전국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수집 · 운반업자, 처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05년도 RFID 시범사업」 및 「2006년도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고정형리더기, 휴대형리더기 등 RFID 장비를 보급 · 설치하고 응용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용에 들어 갔다.

이 시스템 사용자는 지난 1월 11일 기준으로 835개 사업장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전국 5만여 개소 병 · 의원과 수집 · 운반업체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사용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FID 감염성폐기물관리시스템은 전자태그가 부착된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가 리더기(Reader)를 통과하거나 인식되는 순간 폐기물에 관련된 정보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설치된 중앙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된다.

폐기물 종류, 중량 등 폐기물 정보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고 리더기, 전자저울 등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개발되었으며, 리더기에 인식된 정보가 실시간 전송 ·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과 정보의 흐름이 일치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종이인계서를 작성하거나 웹으로 담당자가 인계 내역을 입력하는 등의 업무가 사라지고, 각종 관리대장, 실적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업무가 모두 전산화되었다.

이를 통해 배출자, 수집 · 운반자, 처리자는 감염성폐기물 배출 · 운반 · 처리 업무를 더욱 편리하고 쉽게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또한 자료의 취합, 비교분석 및 통계작성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우선 사용하고 있는 배출자, 수집 · 운반자, 처리업자 대부분은 종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장을 기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편리하고 작업시간이 단축된다고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본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계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또한 사업

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중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해폐기물 관리에도 RFID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발생 · 운반 · 처리 등 폐기물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폐기물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자원재활용, 폐기물 감량화 등 폐기물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관리공단, 2007년도 환경개선자금 1,156억원 융자 지원

환경관리공단(이사장 孫周錫)은 2007년도에 환경개선자금으로 총 1,15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 사업",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408억원을,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및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에 748억원을 지원하며 현재 금리는 3.79~4.79%(변동금리)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15년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 대상 융자금(748억원)중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으로 167억을 별도 책정하여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업체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점이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여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정부환경정책의 수도권대기질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융자신청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www.emc.or.kr)에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도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융자요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공단 융자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건교부, 환경친화적 제설제 사용키로

건설교통부는 이번달부터 겨울철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 사용으로 가로수 성장저해 및 하천오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코자 환경친화적인 제설제를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우 시 도로 · 교량 · 터널 등에서 차량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분진 등 오염물질과 유조차 전복 시 유출된 기름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 유입에 따른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래여과시설 및 기름오염 차단휀스 등도 적극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친화적 도로유지관리 지침'에는 도로포장 · 교량 및 터널, 배수시설 등 12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방법과 유지 관리기법 등 환경친화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본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해수부, 2011년까지 어장환경개선에 3천630억원 투입

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3천632억원을 투입해 어장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에 본격 나선다.

김춘선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어장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어장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 보전하기 위해 '전국어장관리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 · 평가 등에 62억원 ▲어장관리해역 정화사업 868억원 ▲어장환경조사 60억원 ▲어장관리특별해역 정화사업 246억원 ▲어장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345억원 ▲배합사료 지원 등 어장정비사업에 2천50억원 등 2011년까지 25개 사업에 총 3천632억원을 투입해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한다.

해수부는 어장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62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서해안(2009년), 동해안 · 제주(2010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연안어장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역별 · 지역별 어장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어장환경기본도를 제작 · 보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장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유도하고 어장정화사업과 가두리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공동어장 중심의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2008년부터는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에서 정화사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가두리 양식어장 퇴적물 수거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어장관리해역정화(555억원), 양식어장정화(190억원), 가두리저질개선(120억원) 등 총 6개사업에 8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60억원을 들여 2009년부터 오염이 심화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해 정밀환경 조사를 벌여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고 이 해역에 대해서는 125억원을 들여 특별정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업인이 밧줄, 닻, 폐그물 등 어구의 유실 및 방치 예방을 위해 적정한 폐어구 수거 · 처리 장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부표 보급에 325억원, 폐어구 보관시설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어장휴식년제를 시범도입에 따라 250억원을 지원하고, 2011년까지 1천442

억원을 투입하는 친환경 배합사료 보급률을 2015년까지 약 80%수준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사업 정보자료 발간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李起燮)이 지난 2~3년간의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담은 두 권의 정보자료를 발간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개발기획실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를 담은 기술정보지 『에너지기술』과 국제협력사업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국제협력사업 활동현황 및 에너지기술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산업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의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을 소개하는 『에너지기술지』는 100W급 고효율 무전극형광등 시스템, 고성능 가스침탄 열처리기술, CNT(Carbon Nano Tube)를 이용한 고효율 신광원 등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 연구비 지원을 통해 개발된 40여개의 우수과제를 수록하여 관련 기술 수요자에 대해 새로운 고효율 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한편 함께 발간된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국제협력사업 활동현황 및 에너지기술 정책분석 보고서』는 지난 2년간의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국제협력사업의 활동수행내용을 정리하여 에너지 신기술과 관련한 국제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에너지기술정책 수립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두 책자가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로 인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관련 신기술에 대한 정보 수요를 크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들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홈페이지(http://racer.kemco.or.kr) 자료실 코너에서 PDF 파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금강수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량조사결과 나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용을 위해 금강본류 12개 지점, 주요 지천 14개 지점 등 총 26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주기로 연간 35회에 걸쳐 체계적 · 과학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유량측정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도 금강수계의 유량은 2005년도에 비해 평균 16%의 유량 감소가 있었다고 밝히고, 그 원인으로는 지난해 연평균 강우량이 1,157㎜로 2005년도 연평균 강우량 1,448㎜ 보다 약 20%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 본류의 유량은 최상류지역인 가막교에서 7.1㎥/s, 중상류지역인 이원대교에서 58.4㎥/s, 중류지역인 대청댐 하류에서 59.9㎥/s으로 나타났으며, 갑천 · 미호천과 합류된 이후 유량이 급증해 금남교에서 134.4㎥/s, 공주대교 에서 143.3㎥/s, 최 하류인 금강하구언에서 175.3㎥/s으로 나타났다.

금강본류의 유량은 2005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상류인 가막교 지점에서 8% 감소, 중류인 대청댐 하류에서 9% 감소, 금남교 에서 12% 감소, 공주대교에서 20% 감소, 금강하구언에서 34%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됐다.